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10월 외자이용액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1조 899억 위안(약 204조원)이며, 달러로 계산시 17.4% 증가한 1,683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업의 외자사용액은 4.8% 증가한 7,988억 위안(약 150조원),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은 31.7% 증가하였고,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은 57.2%, 첨단기술 서비스업은 25%의 증가율을 보였음
- 투자국을 볼 때 한국, 독일, 영국, 일본의 대중 투자가 각각 106.2%, 95.8%, 40.1%, 36.8% 증가,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외자 사용액은 각각 12.4%, 33.6%, 26.9% 증가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올해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제조업 강국 건설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함. 또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로 중서부 지역이 인프라시설, 경영환경, 인재 등 방면에서 개선을 가져옴에 따라 산업이전 수용 능력이 점차 제고되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11/18/c_1310677628.htm

2 中, '2022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연구보고서' 발표

-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은 11월 16일자로 '2022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디지털 인프라 시설, 디지털 경제 산업, 디지털화 관리, 디지털 가치화 등 4가지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2022년 디지털 경제도시 발전 100강 순위'와 디지털 경제 1~4선 도시를 발표
-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도시는 연속 수 년간 디지털 경제 1선 도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 경제력과 디지털 경제 수준이 전국 선를 차지함. 청두, 쑤저우, 난징 등 14개 디지털 경제 신1선 도시는 1조 클럽으로 청두가 가장 앞섰고 신1선 도시와 1선 도시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디지털 경제 2선 도시의 GDP는 5,000억~1조 위안(약 94~188조원) 사이로 일정한 경제력과 디지털경제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디지털 경제 100강 도시 수량 분포는 장쑤, 산둥, 광둥이 1~3위, 디지털 경제 100강 도시가 전체 도시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쑤, 산둥, 저장이 1~3위로 집계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11/17/c_1310677553.htm

3 中, EV충전기(充电桩) 생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 최근 AUTEL(道通科技), EAST(易事特), SENSSUN(香山股份) 등을 포함한 중국내 여러 상장회사가 EV충전기(充电桩) 해외 인증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적극적으로 유럽, 미국 등 시장을 개척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일부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이미 주문이 발생했음
- 귀신증권(国信证券), 화창증권(华创证券) 등 증권사는 유럽과 미국의 EV충전기 시장규모가 2030년에 이르면 1,000억 위안(약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함
- Sinexcel(盛弘股份)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영국 BP 석유회사의 중국 EV충전기 공급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 AUTEL(道通科技)은 EV충전기 제품이 해외 여러 국가 인증을 통과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국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아오더쑤(奥特迅)은 유럽 표준으로 생산한 제품이 CE인증을 통했다고 밝힘
- 서로 다른 제품 표준으로 중국 내 EV충전기는 직접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우며 해외 인증을 통과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첫 발걸음으로 대규모 수출에 기반을 마련하였음.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배터리, EV충전기 등 업종은 규모화 발전 단계로 기술 수준이 대폭 제고되어 해외 진출에 유력한 상황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ec/ny/gdxw/202211/18/t20221118_38236716.shtml

4 中,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 성장잠재력 높아

- 현재 중국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규모는 500억 위안(약 9.4조원)으로 침투율은 20~30% 수준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침투율은 60~70%로, 중국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향후 5년간 시장규모는 800억 위안(약 15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현재 중국 내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에는 Heinz(亨氏), Gerber(嘉宝), Hipp(喜宝), Bellamy's(贝拉米), 디츄주이하오(地球最好) 등의 외자브랜드 뿐만 아니라 YeeHoO(英氏), 미샤오야(米小芽), woxiaoya(窝小芽), Rivsea(禾泱泱), 추텐만만(秋田满满) 등의 중국산 신예 브랜드도 경쟁하고 있음
- 중국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은 2019~2021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일부 세부 품목은 증가율이 무려 100%에 달함. 최근 대량의 자본도 영유아용 보조식품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예로 미샤오야(米小芽) 최근 5년간 4차례 투자를 받았음
-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아동용 간식은 대량의 첨가제를 사용하여 시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향후 점차 많은 기업들이 아동용 간식시장에 진출하고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하여 건강하고 영양 가치가 높은 간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11/202211101548041081.html>

5 中, 커피산업 관련 신업종 빠르게 발전

- '2022년 커피산업 추세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오픈한 커피숍 가운데 독립 점포가 전체 점포수의 72%를 차지하고 상하이, 광저우, 청두의 독립 커피숍 점포수가 전국의 1~3위를 기록
- 아이리서치(艾瑞咨询)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원두커피 시장규모는 876억 위안(약 16.6조원)으로 2024년 시장규모는 1,917억 위안(약 36.3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 올해 상반기까지 루이싱커피(瑞星咖啡)의 점포수가 스타벅스를 추월하고 중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로 부상했으며, 본토 브랜드 Manner, M Stand, Seesaw 등도 스페셜티 커피로 자본의 힘을 빌어 신속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음식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탄(美团)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초까지 상하이, 베이징, 청두, 광저우, 선전 등 5개 도시의 오프라인 커피 트레이닝 참가수가 가장 많았으며, 20~35세 사이 젊은층의 수요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음
- 업계 관계자는 스페셜티 커피의 출현으로 커피 재배원, 제빵사, 바리스타, 커피 감별사 등 커피산업 다운스트림 종사자가 증가하여 커피 트레이닝은 전반 산업을 아우르고 있다고 전함. 커피 감별사의 경우 전 세계 6,000명의 커피 감별사 중 중국인이 약 2,000명에 달함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www.ce.cn/cysc/sp/info/202211/16/t20221116_38231811.shtml

6 中, 2026년 커넥티드카 시장규모 8,000억 위안 예상

- PWC가 발표한 지난 11월 9일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발표한 '커넥티드카 산업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커넥티드카 시장규모는 빠른 성장세로 2021년 2,126억 위안(약 40조원)에서 2026년 8,000억 위안(약 149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 PWC는 2030년이 되면 커넥티드카 침투율이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커넥티드카는 자동차 제조, 칩 연구개발, 단말 설비, 통신사 등 여러 업종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에 기술능력을 보장해주고 있음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11-10/A1668058620660.html>

7 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년간 10배 성장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5년간 10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25.7% 증가한 1조 6,200억 위안(약 306조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8.6% 증가한 1조 9,200억 위안(약 363조원)으로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고속 성장세를 보임
-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8.6% 증가하고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직접수출과 해외 창고를 활용한 수출이 급증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총 132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온라인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수가 4.6만 개사에 달함. 특히 장쑤성은 최근 3년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이 4배 이상에 달하며 90여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과 인큐베이팅기지를 설립함
- 올해 수입박람회 기간 티몰슈퍼(天貓超市)는 뉴질랜드 우유, 벨기에 초콜릿, 미국 견과류 등을 포함한 9개 국가의 15개 산업벨트의 해외 원산지 제품 수입계획을 밝혔고 왕푸징(王府井) 백화점도 11월 15일자로 베이징시 사이터(塞特) 아울렛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체험점 설립 계획을 발표함
- 이우시(义乌)에 소재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종사업체 관계자는 모 자동차용품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용 청소기가 해외에서 인기로 8월부터 미국,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의 해외창고로 발송하고 있다고 전함. 저장성우정국에 따르면 상하이(11.11) 기간 전기담요, 핫팩, 히터 등의 유럽 소비자 주문이 증가했고 알리익스프레스(速卖通) 관계자는 프로젝터, VR안경 등도 해외에서 인기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11/202211171348181050.html>

8 싱가포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 자회사, 중국 내 일부 공장 일시 가동 중단

- 싱가포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
- 공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반복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11월부터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힘
- 3개 자회사로는 선전시엔진(先进)마이크로전자, 시엔진(先进)반도체설비(선전), 시엔진(先进)과학기술(후이저우) 등이고 직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며 이번 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ASMPT 모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업체 ASML은 2022년 1~9월 중국에서의 설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신규정으로 향후 중국내 40% 이상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Sohu(搜狐)

https://business.sohu.com/a/595586754_121288266